

## 한국타이어, 우수한 성능 “입증”

한국타이어는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지들이 실시한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UHP 타이어인 벤투스 프라임(K105) 등이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딜러지인 구테 파르트(Gute Fahrt)가 2월 실시한 타이어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벤투스 프라임은 Michelin, Pirelli와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타이어의 유럽 수출용 신제품인 옵티모 K415는 프리미엄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전문지 Auto Zeitung의 평가에서 Bridge Stone에 이어 <매우 우수> 평가를 얻었다.

한국타이어는 이밖에 벤투스 프라임과 옵티모 K415가 독일 최대 자동차 전문지인 ADAC의 평가에서도 <추천> 등급을 받았으며, 튜닝용 프리미엄 UHP 타이어인 벤투스 S1 evo(k107)는 고급 자동차 마니아 전문지인 Sport Auto로부터 <추천> 등급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벤투스 프라임은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 주행소음 등 10개 항목 가운데 6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Dunlop, 일본의 Toyo 등은 <우수> 등급을, 일본의 Bridge Stone, 미국의 Goodyear는 <만족>을, 타이완의 Nangang은 <비추천> 등급을 받았다.

한국타이어 조충환 사장은 “1월 Volkswagen에 타이어를 공급기로 한 데 이어 유명 자동차 전문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럽 공략을 가속화하는데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2006년 유럽에서 글로벌 1위 기업과의 브랜드 인지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3/08>